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야간노동 철폐!

# 혁명

## 4차 희망버스 특보

발행일 : 2011년 8월 27일  
발행처 :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3가 70번지 3층  
블로그 : blog.jinbo.net/wrp

#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희망광장으로, 총파업투쟁으로 전진하자!

700여 명의 양심적인 대중들의 자발적, 감성적 연대의식으로 시작된 희망버스운동은 이후 2차에 1만 명, 이어서 3차엔 더 많은 1만5천 명이 모여들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모여들게 했을까. 김진숙 동지의 말을 빌리자면 IMF 이후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만연하고 억압과 폭력이 일상화된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는 대중들의 분노가 한진중공업의 부당해고 문제로 모이게 된 것이다. 이 땅의 많은 대중들은 희망버스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며 정리해고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 안은 것이다. 이것이 희망버스운동의 자발성과 진정성의 원천이며 진정한 추동력이다.



희망버스 대중들은 연속적인 투쟁을 거치며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투쟁의지를 고양시키며 나아가고 있다. 관성화 된 지금의 노동조합운동과 달리 이들은 역동적으로 상황에 적응하며 차벽이 길을 막아도, 물대포와 최루액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해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한진중공업지회 채길용 집행부가 배신적 직권조인으로 길을 빼고 이를 이용한 보수 세력들의 이데올로기 공격

과 폭력에도 이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기세를 높이며 대오를 늘려갔다.

### 희망버스운동 전진에 가로놓인 장애물

희망버스운동은 의제를 확장하며 정치적 계급적 운동으로 진화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서 가로 놓인 장애물이 있다.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법 개악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한 민주당 국참당 같은 자본가정당이

진보정당들과의 야권연대를 매개로 해서 지금 희망버스 대중들에 대한 정치적 대변자 행세를 하고 있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떨쳐 일어난 희망버스운동을 이들 정리해고 도입 세력, 비정규직 양산 세력이 정치적으로 주도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범 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야권 연대를 위해서라면 뭐든

못할 게 없다는 태도다. 희망버스운동이 정녕 IMF 이후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만연하고 억압과 폭력이 일상화된 이 자본독재 세상과 맞서 싸우는 정치적 계급적 운동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야권연대와 민주대연합이라는 장애물을 뚫고 전진해야 한다. 자본가정당과 단절하고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기치 아래 자본독재와 이명박정권에 맞선 정치

투쟁으로 나아가자. 국회청문회와 국회 국정조사 등 부르주아 제도권 정치일정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들의 직접행동을 확대하자. 정리해고 철폐할 때까지, 김진숙 동지가 무사히 내려올 때까지 청계광장, 서울광장에 텐트를 치고 희망버스를 희망광장으로 진화시키자!

### 희망광장으로 진화하고 총파업투쟁과 결합하는 승리의 전망을!

희망버스운동은 노동계급에 연대하는 대중투쟁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쌍차투쟁 패배 이후로 침체되어 있던 노동운동을 고무하며 투쟁의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투쟁을 방기하던 민주노총을 압박해 820희망시국대회를 조직하게 하고 조남호를 청문회에 세운 것은 다름 아닌 희망버스였다. 한진, 쌍차, 재능, 발레오공조, 콜트콜텍 등 장기투쟁 사업장의 투쟁을 고무하여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투쟁단으로 조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희망버스는 지침에 눌린 조직노동자들과 자기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미조직노동자들로 하여금 그 울분과 고통을 현장에서, 광장에서 직접 토해내도록 해야 한다. 청계광장, 서울광장에서 정치인, 상층 명망가들이 아니라 이들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듣고 싶다. 이들의 아래로부터의 자기해방 능력이야말로 기존의 관성을 뚫고 상층의 관료주의, 제도정치권에 대한 의존과 대리주의를 넘어 희망버스운동의 전진을 추동할 수 있다. 4차 희망버스가 나아가갈 길은 정해졌다. 사람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독재에 맞서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이다. 자본가정당과 단절하고 야권연대와 민주대연합을 폐기시키자. 희망광장으로 진화하고 총파업투쟁과 결합하는 승리의 전망을 확고하게 움켜쥐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혁명**



# 속을 대로 속았다. 이제 그만 속자!



## 청문회에서 국정조사로?

마지못해 진행된 청문회는 8월 18일 하루로 끝났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리해고의 주범 조남호에게 청문회 중이라 마지못해 증인이라 부르겠다며 야양을 떨었다. 평소에 회장님이라 부르던 의원들은 머쓱해했다. 의원들은 회장님 아래 있었다. 청문회의 결말은 자본과 국회의 관계 속에서 이미 결정 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남호는 청문회장에 연기 연습하러 온 것 마냥 앓아 있다 들어감으로써 마무리되었다. 국회는 시시콜콜한 잡담소에 불과했다. 희망버스나 한진 투쟁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조남호가 정리해고를 철회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자본가들의 계급적 입장은 단호했다.

민주당도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 희망버스 내내 청문회를 통해서 한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른 야당들도 다급해졌다. 하지만 청문회 환상이 여지없이 깨진 다음에는 다른 카드가 있었다.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진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탈세, 조세피난처를 통한 “국부유출”까지 낱말이 조사하겠다고 조남호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필리핀 수빅 조선소 1단계 공사가 06-07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노무현 정권 때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국정감사 하겠다고 한다. 만약 국정감사가 열린다 하더라도 자본가 정당끼리의 정치공세 이상이 될 수 없다.

## 민주대연합 균불 때가

8월 20일 민주노총 중심으로 개최된 희망시국대회는 희망버스를 중심으로 한 정리해고 철회 정세 속에서 민

주노총의 관료적 지도부가 가고자하는 바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희망버스의 압력으로 개최되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의 힘으로 희망버스에 함께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 심지어 자본가 정당들과 함께하겠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의 정치적 열망으로 탄생한 진보정당들도 지난해부터만 보더

라도 구미 KEC 점거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투쟁과 같은 노동자들의 사활적인 투쟁에 대해 해산을 중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투쟁이 자본에 대항한 전면적 투쟁으로 진행되는 것을 가로막았다. 98년에 정리해고제 대리전인 현대차에서 국회의원 노무현이 했던 것처럼 투쟁을 조직하는 것보다는 노사간 중재가 민주노총이나 진보정당의 주된 역할이 되어버렸다.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상층 관료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참당과 함께하려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다는 신호다. 이제 진보정당들은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 열망을 민주대연합이라는 미명으로 자본가정당들에게 팔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들은 9월 국정감사와 10월 26일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민주대연합을 위한 균불 때기에 들어가고 있다. 진보정당들이 국참당을 비롯한 자본가 정당들과 함께하려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 열망을 쓰레기통에 완전히 처박는 것이다.

## 왜 자본가정당과 단절해야 되는가?

노동자들은 이른바 정권교체 10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이러한 자본가 정권들이 노동자들에게 가한 착취와 억압적 행위들을 보라. 그리고 정리해고제를 비롯해서 비정규직을 급속도로 양산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 사실들을 보라. 이것은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인간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자본가 국가의 필연적 산물이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 버렸던 노무현의 고백은 국가권력이 자본가들의 사적인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맘스의 말이 옳았음을 새삼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했다.

희망버스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정동영의 모습도 마찬

가지다. 그의 진정성 여부는 아직까지는 심리학자의 몫이지만, 내년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자본가 정당의 훌륭한 장식품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장식품은 쓰다가 버려지는 것이다. 자본가 정당의 한 개인이 노동자들의 위해 세상을 바꿔낼 수는 없다. 노동자의 해방은 오직 노동자 자신의 과제여야 한다는 말은 지금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본가 정당에게 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서 벗어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향해 달려온 지난 10여년의 길을 무로 돌리려는 진보정당들의 시도는 좌절되어야 한다! 자본가 정당들과의 단절은 물론,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민주대연합의 제단에 바치려는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의 관료적 지도부로부터 벗어나자!

희망버스의 투쟁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장기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만 보더라도 의회 내에서의 잡담이 얼마나 무망한 것인지 보여준다. 쌍용차 파업 당시의 사회적 약속 중에서 어떠한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누구도 약속의 이행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같은 자본가 정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정당들도 의회가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고 선동하는 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나라당만 아니면 뭐든지 한다는 정치방침으로 얼룩지고 있다.

의회를 통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의회에서의 양보조치조차 폭발적인 대중투쟁의 성과일 뿐이다. 자본가정당과 단절하고 대중투쟁을 통해 돌파하자! 이제 그만속자! **혁명**

창간준비 2호 (2011, 08, 27) 정세월간지

# 혁명

구독신청  
E-mail : wrp@jinbo.net  
전화번호 : 02) 6348-8318  
[ 값 : 5,000원 ]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blog.jinbo.net/wrp